

* 진흥회 동정

『중전기기 PL관리사』 양성교육 고급과정 실시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제조물책임(PL)법의 시행(2002. 7. 1)이 점차 다가옴에 따라 중전기기 제조업체의 제품 안전성 및 신뢰성 구축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초급(6월7일~8일), 중급(7월12일~13일)과정 교육에 이어 오는 8월30일과 31일 양일에 거쳐 한국전기연구원(경기도 의왕시 소재)에서 초급, 중급과정 이수자 31개사 57명을 대상으로 올해 교육일정의 최종 단계인 고급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국내 최초의 "중전기기 PL관리사"를 배출하였다.

진흥회는 마지막 날인 8월31일 전과정 교육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중전기기 PL관리사" 인증서 수여식을 거행하고 올해 교육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아울러 진흥회는 교육이수자를 중심으로 "중전기기 PL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며 또한 (주)PL코리아와 공동으로 일본 선진기업들의 PL대응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는 9월25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의 전력회사, 제조업계, 공사업계의 공장들을 방문하는 "대일벤치마킹 연수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또한 PL법 시행시기와 관계없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전기기 업체에서 분야별로 최소 1명의 PL관리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방안을 강구하여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기술진흥팀)

품질경영 우수업체 방문 참가자 모집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회원사의 품질향상 도모와 기술정보 습득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9월19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 간 회원사 및 유관기관 임·직원 40여명으로 공장 방문단을 구성하여 국내 품질경영 우수업체의 공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92년 중전업계의 품질 향상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 행사는 제조물책임(PL)법 시행(2002.7.1) 및 업체의 제품 품질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의 일정은 9월19일 (주)비츠로테크 안산공장 견학을 시작으로 성원전기공업(주) 화성공장, 9월20일 삼성전자(주) 수원공장, 충남 당진의 당진화력발전소 견학 후 태안반도로 이동, 방문단 일행을 대상으로 "품질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 마지막 날인 9월21일에는 오전에 태안국립관광공원을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하고 대산으로 이동하여 민간발전소인 현대중공업(주)의 대산발전소를 견학하고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진흥회 홈페이지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www.koema.or.kr) 소식망(등록No 74)에서 다운

(문의: 기술진흥팀)

제2차 중전기기술개발기금 지원 신청접수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한국전력공사의 생산기술 개발사업(91-95) 기술료를 기금화하여 중전기기 연구개발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인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을 지난 상반기 11개 과제 49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40억원 규모의 개발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8월31일 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동기금은 98년 16개 과제 34억원의 저리융자를 시작으로 2000년까지 51개 과제 116억원을 지원하여 연간 1억불 정도 수입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IMF

외환위기 중에도 중전기기분야 기술개발 촉진유도, 기술평가보증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담보대출 부담해소에 기여하였다.

기금에 대한 융자금리는 연 5.0%, 지원한도는 일반과제 5억원, 핵심과제 15억원(최대 3년간)이며,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써 동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융자사업자로 선정된 과제는 기금취급은행인 한미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문의: 기술진흥팀)

“동유럽 지역 전기산업 시장동향” 발간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우리 업계의 해외 수출시장 확대 및 틈새시장 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세계시장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해당 권역국가에 대한 전기산업 현황 및 동향 등을 조사, 분석하여 “해외시장 정보시리즈”를 발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해외시장 정보시리즈 제7호로 최근 전기산업의 틈새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또한 국가전력망 설비를 확충하고 있어 우리 업계의 진출가능성이 기대되는 러시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동

유럽 4개국에 대한 시장동향을 조사, 분석한 『동유럽지역 전기산업 시장동향』을 발간, 배포 중에 있다.

이 자료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개황, 전력사업 동향, 전기산업 동향(수요, 경쟁, 가격), 투자제도 및 절차, 전기산업 수출·입, 입찰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전기업계가 동유럽지역의 시장 진출에 있어 활용도가 높은 자료로서 이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진흥회에서는 해외시장 정보시리즈를 회원사 및 관련기관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 자료의

구독을 원하는 경우 진흥회 자료회원에 가입하거나 통상전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對日 벤치마킹 연수단 파견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주)PL korea와 공동으로 일본 선진기업들의 PL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갖으므로써 PL 위험에 따른 전사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전업계 경쟁력 강화의 계기 마련을 위하여 9.25-29까지 구주전력, TOTO, 남해전설, 정홍전기(SEIKO), 구주전공등 전력회사·중전업계·공사업계 공장을 방문하여 PL구축 시스템 현황에 대한 기술습득을 하고 또한 일본기업이 PLP 활동방향과 성과 및 제품안전 활동교육을 받기 위해 『중전기기 PL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일벤치마킹 연수단』을 파견한다.

이번 행사내용은 전력공급 및 전기기기 수요처인 구주전력을 방문하여 협력업체와 수요처간의 PL 관계정립을 습득하고, 전기기기 제조업체인 TOTO에서는 PL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활동 체계 및 고객 클레임 대응체계를, 전기설비 업체인 남해전설에서는

PL 문서 및 기록관리 체계를, 수변전, 개폐기 생산업체인 세이코전기에서는 제조업체의 PLP 활동 및 품질경영 시스템과의 연계를, 전기공사업체인 구주전공에서는 설치업체의 PLP 활동 및 시공후 보전 관리 방안을 벤치마킹하고, 또한 구주대 키타가와 도시미쓰 교수등이 일본기업이 PL 대응에 관한 강의를 할 예정이다.

동 연수단 신청마감은 9. 8(토)까지이나 효율적인 연수를 위해 선착순 20명으로 한정키로 하였고 1인당 소요비용은 195만원이며,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원은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문의는 본회 기술진흥팀 또는 PL코리아(한정훈 대리, 5454-288)로 하면 되며, 참가신청서 등은 진흥회 홈페이지 소식망(등록No 65)에서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2001년도 산업기반기금 융자대상사업자 선정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지난 8월13일 진흥회 회의실에서 2001년도 산업기반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신기술보급 전기부문에 대한 기금 융자대상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내용은 ▲(주)동남물산 가스 절연개폐기 알루미늄 외합 생산체계 구축 ▲국제전기(주) 3상 3각 권철심변압기 제조설비 구축 등 2개 사업에 총 2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진흥회는 올해 동 기금의 지원에 대하여 수 차례 공고를 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업체의 신청이 없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고심하였으나 이번에 대상사업자를 선정하여 올해 전기분야 배정금액을 전액 소진하게 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정부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예정이다.

산업기반기금은 NT, EM마크 인증 및 특허, 실용신안 등의 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사업화를 위해 지원하는 시설자금으로 융자조건은 금리 년 6.0%로 기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또한 보유기술의 기술평가에 따라 담보로도 제공이 가능한 사업으로 기술력 보유업체가 이용해 볼만하다.

